삼성 투자 업고 지역성장 선순환…자족형 첨단 산업도시 대전환



지난달 21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 건설현장에 세워진 수많은 타워크레인이 밤하늘을 밝게 빛내고 있다. /평택=조영권 기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에서 길을 묻다

반도체가 바꾼 평택의 경제지도

양질 일자리·배후 주거 수요 동시 형성

인구 46만→66만명…10년새 20만↑

사업체 72.4%·종사자는 23.1% 급증

1인당 GRDP 경기도 평균 1.7배 수준

고덕동 3040 비중 40% '젊은 도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저출생과 청년층 이탈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는 대규모 기업 투자가 도시의 인구 구조와 경제 지형을 바꾼 대표 사례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를 차세대 반도체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하면서 평택은 수도권 외곽 도시를 넘어 첨단산업과 인구 유입을 이끄는 자족형 산업도시로 빠르게 성장했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인구 유입, 주거 인프라 확충,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는 도시 성장의 선순환도 나타나고 있다.

◇첨단산단 기반 경제·인구 고도화

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와 평택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평택시 인구는 2015년 40만552명에서 지난해 66만339명으로 급증했다. 불과 10년 만에 19만9천787명의 정주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이 기간 인구 증가율은 무려 43.4%에 달한다.

이 같은 급격한 인구 팽창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심각한 인구 절벽에 직면한 타 지자체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인구수의 단순한 증가를 넘어 첨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배후 주거 수요가 동시에 형성되면서 도시의 경제적 체질과 인구 체계가 함께 고도화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택 성장의 핵심 견인차는 단연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다. 삼성전자는 고덕산단 내 약 286만㎡(약 87만평) 부지에 반도체 생산라인 P1부터 P6까지 조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를 집행해 왔다.

2017년 7월 첫 번째 라인인 P1이 상업 가동을 개시한 데 이어 P2(2020년)와 P3(2022년)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P4 라인을 포함한 후속 공장 건설과 첨단 설비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평택캠퍼스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생산기지는 직접 고용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건설·설비·물류·소재·부품 연관 기업들의 활동을 전방위로 확장시키는 파급 효과를 낳았다.

정규직 상주 인원과 공장 증설 인력의 연쇄 유입은 지역 내 소비 증대와 주거 수요 폭발로 연결됐고 이는 다시 주변 상권과 지역 서비스업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동력이 됐다.

◇경기도 평균 크게 웃도는 경제력

대규모 반도체 산업 집적의 효과는 지역 경제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지역 경제의 전체 규모와 생산성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평택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3년 기준 7천19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독보적인 수치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의 1인당 GRDP는 2020년 3천888만원, 2021년 4천139만원, 2022년 4천200만원, 2023년 4천316만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평택시는 2020년 6천426만원, 2021년 6천655만원, 2022년 7천201만원을 기록한 뒤 2023년 7천191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경기도 평균과 비교하면 약 1.6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제조업 기반의 높은 부가가치가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나타내는 사업체와 종사자 지표 역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평택시 내 사업체 수는 2019년 3만7천539개에서 2024년 6만1천714개로 5년 만에 2만7천175개(72.4%)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 또한 23만1천430명에서 28만8천561명으로 5만1천122명(23.1%)이 증가했다.

이는 첨단기업 유치가 단순한 생산시설 확충을 넘어 수많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사와 서비스업체들의 동반 입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정착됐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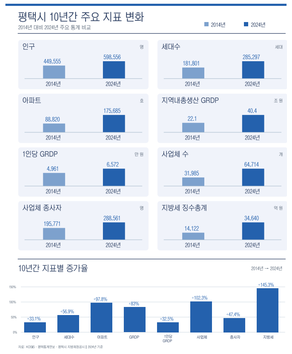
◇'국가적 저출생' 돌고 2년 연속 반등

평택의 반도체발(發) 활력은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흐름마저 반전시키고 있다. 평택시의 합계출산율은 최근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국과 경기도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평택시 합계출산율은 2019년 1.10명, 2020년 1.06명, 2021년 1.03명으로 하강 곡선을 그린 데 이어 2022년 1.03명, 2023년에는 0.92명까지 떨어지며 1명 선이 무너졌었다.

그러나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2024년 1.00명으로 1명대를 다시 회복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02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및 경기도의 출산율 추이와 비교할 때 더욱 눈에 띄는 성과다. 전국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하락했다가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 역시 2019년 0.94명에서 2023년 0.77명까지 떨어진 뒤 2024년 0.79명, 2025년 0.84명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평택시의 합계출산율(1.02명)은 전국(0.80명)과 경기도(0.84명) 평균을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이러한 상승세는 실제 출생아 수 수치로도 증명된다.

또한 올해 출생아 수는 8월 말 기준 3천234명으로 전년 8월 말 2천860명보다 13% 늘어났다.

이 같은 출산율 역주행의 배경에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신도시 개발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한 양질의 일자리가 젊은 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덕국제신도시 등 쾌적한 주거 단지가 조성되면서 청년층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정주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3040 가구 유입…'젊은 도심' 형성

일자리와 주거 환경의 결합은 파주지세의 인구 순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시의 인구 순유입(전입 인구-전출 인구)은 1만1천623명을 기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해의 성장세다. 올해 1~8월 불과 8개월 동안 평택시로 순유입된 인구는 1만970명으로, 이미 지난해 1년 전체 순유입 규모를 뛰어넘었다. 인구 유입의 속도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평택시 인구 유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일용 노동 인구의 일시적 거주가 아니라, 30~40대 경제활동인구가 어린 자녀 세대를 동반해 '가구 단위'로 이주한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의 연령 구조를 대단히 역동적이고 젊게 변화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지난 8월 기준)에 따르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배후에 둔 평택시 고덕동의 인구 구조는 놀라운 수준이다.

고덕동의 14세 이하 유아·아동 인구 비중은 21.8%에 달해, 경기도 평균(11.1%)의 두 배에 육박한다. 또한 부모 세대인 30~44세 인구 비중 역시 38.5%로 경기도 평균(21.8%)을 압도적으로 웃돌았다. 즉 고덕동 주민 10명 중 6명 이상(61.3%)이 30~40대 부모와 14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셈이다.



이러한 젊은 층의 집적은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교 신설 수요를 폭발시켰고, 학원가와 육아 편의시설, 상업 인프라가 신속하게 들어서게 만드는 선순환을 낳았다.

이처럼 고덕 일대는 인구가 수배 늘며, 전국 소도시 앞에 놓인 지방소멸 위기를 비켜갔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평택은 초대형 반도체 생산라인 유치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지역의 인구 구조와 경제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며 "전남광주 역시 흘륭한 대학 인프라와 양질의 인재를 갖추고 있지만, 첨단산업 일자리가 부족해 매년 수천 명의 2030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남광주에 반도체 팹과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함께 들어선다면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는 동시에 타 지역 청년층까지 유입시키는 막강한 인구 블랙홀로 지역 내 사업체 수와 고용 종사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격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변화는 전남광주가 단순한 지방도시의 한계를 넘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자족형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본부=안태호 기자

"몇년전까지 논밭이었는데"…축구장 400개 규모 '상전벽해'

평택캠퍼스·고덕 신도시 가보니

공장 면적 87만평…'몬드리안 뷰' 압권

직원·공사 근로자 등 日 수만명 출퇴근

주변 식당가 등 북적…지역상권 '활기'

학령인구 3배 증가 따른 학교 신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논밭이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겁요."

지난달 21일 오후 4시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왕복 8차선 도로를 따라 높게 세워진 공장 규모에 절로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공장을 더 잘 보기 위해 도로를 건너봐도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웅장했다. 실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면적은 약 286만㎡(87만평)로, 축구장 400개가 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캠퍼스 외곽을 따라 이동하자 완공된 공장 뒤편으로 또 다른 건설 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사장 안으로는 수많은 굴착기와 화물차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내부로는 콘크리트 기둥과 보를 층층이 연결한 공장 골조가 눈에 띄었다.

◇"논밭에 들어선 축구장 400개 규모 '몬드리안 뷰'"

2015년 5월 첫 삽을 existing 뜬 평택캠퍼스는 2017년 7월 첫 번째 반도체 생산라인인 P1의 가동을 시작했다. 이후 생산 시설을 잇달아 증설하며 현재 P2, P3에 이어 P4의 일부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고, 현재는 P5의 팹1, 팹2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P5는 길이 약 653m, 폭 195m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생산 시설로,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 타워를 가로로 눕힌 것보다 95m나 더 길다. 삼성전자는 P5 팹1은 2028년, 팹2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일대에서 30년 가까이 거주했다는 전모(50대) 씨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는 논과 밭이 전부였다고 회상했다.

"예전에는 여기서 논 건너 마을이 훤히 보였어요. 처음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뭐 건물 몇 동 정도가 들어오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한 동이 다 지어졌다 싶으면 또 그 옆에서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갑수록 공장 규모도 커지고, 이젠 뭐 논밭은 커녕 '몬드리안 뷰'라는 말까지 생겼으니 말 다했죠 뭐."

전씨의 말처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평택 시민들 사이에서 '몬드리안 뷰'로 불리기도 한다. 공장 외벽에 네덜란드의 추상화가 piet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굵은 검은 선과 함께 빨강·노랑·파랑의 다양한 사각형이 칠해져 있어서다.

고덕신도시 일대 부동산 매물 설명에서도 '투름 월세 몬드리안 뷰' 등의 문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창밖으로 공장이 보일 만큼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의미를 넘어 지역의 달라진 풍경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된 셈이다.

◇"퇴근길엔 식당, 출근길엔 가판대"…노동자 따라 상권 변동

해가 저물 무렵인 오후 6시께가 되자 캠퍼스 주변에는 작업복 차림부터 평상복까지 다양한 차림새의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도로변에서는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출퇴근한다는 이모(30대) 씨는 "삼성전자 직원들과 P5 건설 공사 근로자까지 하루 수 만 명이 오고가다 보니, 차보다는 이동이 용이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동삭동-평택A-2'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는 박모(30) 씨는 "집이 있는 동삭동으로 가는 통근버스 노선도 있고, 셔정동이나 이충동 등 다른 동네에서 약속이 있어도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퇴근길 일부 노동자들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고 인근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일부 식당은 빈자리가 없어 대기해야 할 만큼 손님들이 몰리기도 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0대) 씨는 "반도체 시설 공사가 시작된 후 작업복을 입은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기 시작했고, 점심이나 저녁시간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손님이 몰린다"고 말했다.

점심 무렵이 되자 공장 앞에는 인근 식당에서 보낸 대형버스가 줄지어 이들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이모(60대)씨 또한 "주변에 이런 식당만 20곳으로 적지 않은 편인데, 점심이나 저녁 시간이면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정신이 없다"고 전했다.

다음 날 오전 5시께 다시 찾은 캠퍼스 주변은 전날과 또 다른 모습이었다.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출근길 노동자를 맞는 가판대와 상인들로 활기를 띠었다.

쌀쌀해진 공기에 웃을 여민 채 고개를 숙이고 출근을 서두르던 이들 중 몇몇은 공장 근처에 늘어선 가판대 앞에서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가판대에서 파는 김밥과 오뎅, 토스트 등을 먹기 위해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이야기부터 월급, 아이 양육에 대한 이야기까지 평택에서의 삶에 대한 다양한 대화가 오갔다.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이모(60대·여) 씨는 "건설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장사를 하는데, 오전 5시가 넘어가면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다"며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보다 가판대 수도,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식당과 상점의 영업 풍경까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따라 모인 사람들'…아이 웃음소리도 늘어

"돈 벌려고 오는 젊 또래 20~30대가 정말 많아요. 평택캠퍼스까지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고덕신도시에서는 원룸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1.5평 오피스텔 월세가 8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원을 내고 있어요. 한때는 여기 월세가 서울 강남 월세보다 비싸다는 말이 돌기도 했어요."

2023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는 고모 (32)씨는 평택의 달라진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고씨의 고향은 인천이다.

고씨는 "건설 현장부터 공장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일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평택으로 이주한 경우도 많다"며 "안정적인 직장 때문인지 평택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보다 결혼을 빨리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평택의 혼인·출산 지표도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2025년 평택시 합계출산율은 1.02명으로 전국 평균 0.80명과 경기도 평균 0.84명을 웃돌았다. 2023년 0.9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99명으로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상승했다. 평택시는 제조업 투자 확대와 청년 인구 유입, 주거 여건 개선 등이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젊은 가족이 늘면서 학령인구와 교육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근처인 평택시 고덕동의 6-18세 학령기 인구는 2022년 9월 3천423명에서 올해 9월 1만229명으로 약 3배 늘었다.

고덕신도시 곳곳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함께 학원, 태권도장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생활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고덕동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A 0(대)씨는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젊은 부부들도 많아지면서 도장에 등록하는 아이들 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면서 여러 사범님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는 대형 규모의 태권도장도 여럿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고덕지구로 이사를 왔다는 이모(40대·여) 씨는 "주변에 학원이나 아이들이 다닐 만한 시설이 많이 있어서 생활하기 편하다"면서도 "또래 아이들이 많아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초·중학교가 부족한 편이다. 한 학년에 11개 반까지 있는 초등학교도 있고, 등하교 시간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하다"며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학교도 더 생겼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처럼 늘어나는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 수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4개학급 규모의 초등학교와 38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두 학교 모두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서 신설 계획이 승인된 유치원 1곳과 중학교 1곳까지 포함하면 같은 해 고덕지구에 모두 4곳의 교육시설이 새로 문을 열게 된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평택의 여러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부터 가족들과 터전을 일군 노동자,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까지.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이후 평택에는 공장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었다.

전남광주 역시 군공항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의 변화가 보여주듯 첨단산업의 유치는 생산시설 하나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일자리와 주거, 소비와 교육, 그리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까지 도시 전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몇 년 뒤 전남광주에서도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과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가족들이 도시의 풍경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평택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남광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별취재본부=이연상 기자



지난달 22일 함박산중앙공원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직원들이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있다. /평택=조영권 기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직원들이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지난달 2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번 게이트 앞 사거리에 건설 근로자들이 분주하게 출근을 하고 있다. /평택=조영권 기자